

쉬워진 '퇴직연금 실물이전'... 증권사, 400兆 머니무브 기대감

미래에셋증권

포트폴리오 구축, RA 서비스 제공
가입자 성향 맞게 상품 매칭 제시

한투증권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 '최초'

삼성증권

운용 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숙련된 상담원 배치 등 편의성 ↑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규모 자본 이동을 예고하는 역동적인 금융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400조원대 퇴직연금 시장의 '머니무브'가 예고됐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은행권에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로의 이동이 기대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수혜를 기대하며 연금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IRP·DC)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동할 시 현금화, 중도해지 페널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해 투자자들이 쉽사리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실물이전제도 시행으로 인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 증권에서 은행 등 퇴직연금 이사가 손쉬워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400조8787억원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10조원은 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은행(4.87%)보다 증권사(7.11%)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고수익과 투자 전문서비스를 내세우며 초대형 '머니무브'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팀장은 "은행, 보험사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지연매매 또는 종가매매 등

시차를 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반면, 증권사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라인업 측면에서도 증권사는 대부분의 ETF를 라인업하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 ETF 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적립금 1위 '미래에셋증권'... 맞춤형 상품 매칭 부각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17조5000억원으로 증권사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통합연금포털 기준 올해 3분기 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기여형(DC)의 1년 가중평균수익률도 적립금 상위 10개사 중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가중평균수익률이 이란원리금보장, 비원리금보장 수익률을 가입자들의 적립금에 해당 비중을 곱한 수익률이며 IRP는 9.85%, DC에서는 9.96%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MP(미래에셋 포트폴리오) 구축,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전체 잔고는 9월 말 기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우수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대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에 맞게 매칭해 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 세무, 노무, 계리 등 영역별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금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담 조직 규모는 263명으로 본사 연금지원조직 175명, 본사 연금영업조직 8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한국투자증권, 'ETF 적립식 자동투자' 최초 도입

퇴직연금 적립액 14조5000억원(증권사 중 2위)을 기록중인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업권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ETF 시장은 올해 150조원을 넘기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를 방증했다. 적립식으로 자동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자동 투자하면서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며 유망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업권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터넷은행 3사와 협업해 간편하게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추 퇴직연금계좌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AI 일일형 랩 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연금 투자 편의와 수익률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증권, 반년 만에 적립금 30% 불어1 선두 맹추격

삼성증권은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4조100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말 대비 29.2% 증가했다.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출시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 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시간 제외)와 '연금 S톡'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업계 최초로 연금센터에 프라이빗뱅크(PB)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전문화된 연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연금 인력 배치는 연금본부 총괄 아래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펀드, ETF 등의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채권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상품 라인업을 구성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인해 고금리 채권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퇴직연금 모바일 채권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채권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정학적 리스크 속 '방산 ETF' 주목

한화자산운용, '글로벌방산' ETF 상장
K 방산 ETF, 3분기에도 호실적 유지
미래에셋증권, '美방산TOP10' 출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 '방위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겨냥해 방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이달 중으로 'PLUS 글로벌 방산'을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 ETF는 미국(50%)과 유럽(50%)의 대표 방산기업 상위 10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성 종목은 전체 매출 중 방산 산업 관련 매출이 절반이 넘는 퓨어 플레이(pure play·한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상장사) 방산주로만

구성된다.

이미 'PLUS K방산' ETF로 국내 방산 ETF 시장을 선점한 한화자산운용은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방산 분야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월 상장한 'PLUS K방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오션, LIG넥스원 등을 담고 있고, 해당 기업들은 3분기에도 호실적을 유지했다.

현재 'PLUS K방산'은 국내 방산 ETF 중에서 가장 큰 순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전체 ETF 상품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상장 이후 단 한번도 '마이너스' 수익률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글로벌 방산기업들을 주요종목으로 담은 'TIGER 미국방산TOP10'를 상장했다. 국내 기업만 담은 것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해당 ETF는 미국 방산주 10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록히드마틴(펀드 내 비중 23.1%)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4월에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10월에는 신한자산운용이 연이어 방산 ETF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대형 방산기업의 수는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운용사들이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방산 ETF 시장을 선점한 한화자산운용을 필두로 다른 운용사들도 방산 ETF 상품에 관심을 두고 관련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Korea Value-up ETP 상장세리머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투자자 보호되는 시장 만들 것"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KCMC) 2024'를 열고, 한국 자본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케빈 스네이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대표, 데니스 리(Dennis Lee) S&P DJI 지수 거버넌스 글로벌 헤드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주요 기관투자자, 증권사, 정부당국, 상장기업 관계자 약 1000여명이 방문했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미래 경영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9월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약 511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12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목에 대한 상장 기념식도 이날 진행됐다. 패시브 발행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9곳이며, 액티브 운용사는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트러스트운용사다. 삼성자산운용은 ETN도 발행한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오늘은 밸류업 지수 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라 더욱 뜻깊은 날"이라며 "내년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를 도입해 국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ESG 공시 활성화 적극 지원 등으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해 투자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코리아 밸류업 TR ETN' 상장

운용보수 0% 제비용 차감 없어
만기일 2034년 10월 30일까지

삼성증권은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은 한국거래소 상장주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과 같은 규모 요건 이 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양의 1배수로 추종하고, 구성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품이다.

삼성증권의 이번 ETN은 운용보수(제비용)가 0%로 제비용 차감 없이 기초지수 변화에 따른 등락이 100% 지표 가치에 반영된다.

펀드가 청산되지 않는 한 만기가 없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삼성증권의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은 만기일이 2034년 10월 30일이다.

/원관희 기자 wkh@